
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0.7.31.(금) 조간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 (02-2100-2657)	담 당 자	허 성 사무관 (02-2100-2643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이 경 식 (02-3145-7580)		문 상 석 팀 장 (02-3145-7600)
	금감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 성 수 용 (02-3145-7530)		김 범 수 팀 장 (02-3145-7532)
	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장 정 미 영 (02-3774-9360)		송 기 명 팀 장 (02-3774-9363)
	금투협 증권·파생부문대표 이 창 화 (02-2003-9013)		진 양 규 부 장 (02-2003-9160)

제 목 : 파생결합증권시장을 보다 건전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.

파생결합증권이 우리 금융시장에 잠재적 위험요인*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

- ① 증권회사 건전성·유동성 악영향 : '20.1분기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·운용 손익은 △9,067억원으로 '19년 이익규모인 7,501억원을 초과
- ② 지난3월 금융시장에 충격 발생 : 국내 증권회사가 파생결합증권 헤지운용을 위해 보유한 해외파생상품의 마진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CP금리와 환율이 급등
- ③ 손실 가능성이 상당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 : 시장변동성이 확대된 위기상황에서도 투자 지속

- ❶ 증권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관리강화, 유동성비율 규제 내실화를 통해 시장변동성 확대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,
- ❷ 시장충격발생시 ELS등이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지 않도록 파생결합증권 규모 축소 및 헤지자산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한편,
- ❸ 투자자가 수익실현조건과 손실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였습니다.

세부내용은 '(별첨)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금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은 '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'이며 '제시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'는 점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질병관리본부 콜센터	
--	---	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